



# 포장업의 위상정립이 목표

## 조직체계 확립 통한 이미지 쇄신 주력

김 순 재 / 한국지함공업(주) 대표이사 · 대원포장(주)대표이사

**여** 세업체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함업계에 협동화사업단지가 조성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대원포장(주), 영림포장, 삼아포장(주), 영진포장, 신영산업 등 5개업체가 뜻을 모아 조성한 협동화사업단지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준비해 온 지함업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었다. 다들 협동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만 해놓고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인 지난 해 6월 공장 시공식이 거행되었고 마침내 지난 12월 29일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출발을 한 한국지함공업(주)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대원포장(주)의 김순재 사장이 선임되었다. 김 사장은 지함업계의 협동화 사업이 포기되지 않고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일로 바꾼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사장은 "90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았으니 꼭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 시작한 일이니 만큼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라며 협동화단지 조성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초기 사업에 동참했던 업체의 수는 19개였다. 하지만 10년을 지나오면서 뜻을 같이 했던 업체들은 IMF 등의 여파로 인해 적잖이 무너졌고 결국은 5개사만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

협동화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5개업체는 어찌 보면 지함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번 협동화 사업 단지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 "영세한 업체에서 조합을 이루어 놓으니 조합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게 되었고 그게 바로 협동화 단지 조성이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조합강화에 의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어렵사리 시작된 협동화단지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다. 관련업체들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화단지 내에 있는 업체의 대표들은 어찌 보면 이제는 제 2선으로 물러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함 1세대들이 시작한 협동화단지이니만큼 업계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김 사장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한국지함공업(주)의 포부를 내보였다.

폭1800mm 골게이터의 도입으로 골판지의 생산체계까지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지함공업(주)은 우선적으로 물류비 감소로 인한 원자재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협동화단지 내에 5개업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제지업체에 물류비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원자재가 하락은 생산원가의 하락과 함께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물류비는 원지 1sqm당 20~25원 정도입니다. 이 물류비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골게이터 도입으로 골판지 제조도 가능해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골판지업계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김 사장의 소망은 포장업이 영세산업이라는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운영조직의 체계 확립과 더불어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좀더 나은 제품 생산만이 유저들에게 뿐만 아니라 포장업을 영세업으로 치부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김 사장의 경력은 화려하다. 70년대 전량 수입하던 방습지 개발을 시작으로 반도체 수출용 카본 박스 개발, 카본을 대체할 수 있는 섬유와 펄프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용 박스 개발 등이다. 단순히 상자만을 만드는 업종이라는 인식에 그칠 수도 있는 업계에서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진정한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반도체 관련 국내 대기업들에서도 김 사장의 연구 개발로 인해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김 사장은 현재 또 한가지 아이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를 담은 플라스틱 보관함이 카본을 이용한 것이라 재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친화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이용한 보관함을 개발했다.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쓰러지기 마련이지요. 이 제품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개발한 것인데 여유를 갖고 지속해보니 재미있기만 합니다”라며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로움은 우리가 닦아가야 하는 넉넉함을 생각하게 했다. ☞

이선경 기자